

면역기능이 정상인 환자에게 나타난 거대세포바이러스 식도염

메리놀병원 내과¹, 메리놀병원 소화기내과²김영아¹, 김우승², 강병모²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CMV)에 의해 유발되는 질병 및 증상은 대부분 숙주의 면역기능에 의해서 결정되며,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다양한 질환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장관에 발병한 CMV 감염은 드물게 면역기능이 정상인 사람에게서 발생할 수 있으며, 대장 및 회장에 호발하여 궤양성 병변을 발생시키고 위, 십이지장 등에서도 발생하여 복통, 궤양, 출혈, 천공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정상 면역을 가진 환자에서 위내시경을 시행하고 관찰된 식도 궤양에 대해 조직학적검사와 면역화학검사를 통해 확진된 거대세포바이러스 식도염 1 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특이병력 없는 26세 남자환자가 2주일 동안의 연하곤란, 소화불량, 메스꺼움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으며, 상복부통증을 호소하였다. 위내시경 검사에서 상절치 하방 35 cm 에 1.5 cm 크기의 경계가 분명한 궤양이 관찰되었다. 생검 결과는 급성혈관염을 동반한 역류성 식도염이 확인되었으며, CMV PCR 검사에서 양성확인되었다. 표준용량의 위산분비억제제 (에소메프라졸) 투여하였고 환자는 2주간 복용후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3달간 위산분비억제제를 복용하였다. 위내시경을 재실시하여 CMV로 인한 궤양이 호전됨 확인하였다. CMV 감염은 악성 종양환자, 면역억제제를 투여중인 환자, 후천성면역결핍환자 등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폐렴, 간염, 망막염, 뇌염, 뇌수막염 등 다양한 질환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MV 위장관염의 양상은 다양하며 주로 다발성 미란과 궤양으로 나타난다. 궤양의 형성 기전은 불확실하나 소혈관의 내피세포에 CMV 침범으로 혈관염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궤양은 넓고 비요철형인 궤양저와 분명한 경계의 궤양변을 보이는 반면에 궤양 주변연의 부종은 심하지 않다. 면역기능이 정상인 환자에서 나타난 CMV 감염증은 대부분은 자가 회복 질환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치료가 임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 본 증례는 연하곤란을 주소로 내원한 면역기능이 정상인 환자에게 실시한 위내시경 검사에서 CMV에 의한 식도궤양이 확인되었으며 위산분비억제제 사용으로 호전된 1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